

아마라바티 고대도시 마하야나 대승 불교의 탄생지



선 부다(Dhyana Buddha)의 현대조각 건설현장
A contemporary construction representing the Dhyana Buddha. Courtesy artist Mallikarjuna Rao © V. Raju 2015.

Amaravati Ancient Town Birth Place of Mahayana Buddhism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나라 찬드라바두 나이두 수상은 아마라바티라는 브랜드의 열정적인 홍보 대사로서 고대 도시의 복원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Andhra Pradesh Chief Minister Honorable Nara Chandrababu Naidu is a passionate advocate of the brand Amaravati helping the conservation of the Ancient Town. © A.P.Government. 2015.

제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는 가장 신성한 불교 성지 중 하나로 아마라바티를 종종 언급하곤 했다. 그는 2006년에 이곳에서 약 600년 전 14세기에 있었던 카라샤크라 행사를 집전하기도 했다. 아마라바티의 유적지는 일부는 잔해로 일부는 보존지역으로 남아있다.

세계적인 아마라바티의 조각상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도난당해 영국 대영박물관 최고의 소장품으로 전시되어 있기도 하다. 2015년 말에 인도정부는 아마라바티 고대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인도는 그동안 방치돼 왔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첨단에 이르렀다. 중앙정부

His Holiness the 14th Dalai Lama, Tenzin Gyatso, has often mentioned that Amaravati is one of the most sacred Buddhist sites. He conducted the Kalachakra ceremony there in 2006, some 600 years after the previous one in the 14th Century. Amaravati heritage remains in ruins and conserved sites. Most of the world famous Amaravati sculptures were removed or stolen and the best collection is in the British Museum. Indian Government has launched a major project to revitalise the Amaravati Ancient Town at the end of 2015.

India is on the cusp of a paradigm shift in the way its much neglected heritage will be conserved. The drought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석탑. 옛 화려했던 장식 난간과 돔, 아야카 기둥, 종교유물과 조각상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The Great Stupa, one of the largest in South Asia, stripped bare of its once famous ornate railing and dome, Ayaka pillars, sacred relics and sculptures. © A.Galla 2007.



대영박물관 아시아 갤러리에서 찍은 사진, 아마라바티 Photo taken at the British Museum, Asian Gallery, London © A. Galla 2015.

가 시작한 HRIDAY는 문화유산도시에 초점을 맞춘 반면, PRASAD는 성지순례 목적지에 국한하는 등 두 개의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해소됐다. 덧붙여 스마트 도시사업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성에 문화적 지속성을 네 번째 기둥으로 세워 인도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발전의 21세기 실천으로 도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환을 위해서는 적절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안드라 프라데쉬에 위치한 고대도시 아마라바티는 잠재적 시범프로젝트로 가능성의 삼각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HRIDAY와 PRASAD 두 방식이 결합되었고 더불어 안드라 프라데쉬의 주총리인 찬드라바부 나이두는 주의 새로운 수도를 아마라바티로 부를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옛것과 새것이 병치되어 이렇게 버려진 문화유산도시를 망각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지만 이것은 또한 양날의 검이기도

in funding is almost broken with the launching of two new schemes by the Central Government: HRIDAY focussing on heritage cities and PRASAD enhancing pilgrimage destinations. Added to this, if the Smart City initiatives can locate culture as an integral fourth pillar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n India will genuinely leapfrog into the 21st Century practice of 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 However, it requires appropriate capacity building to facilitate transformations.

As a potential demonstration project, the ancient town of Amaravati in Andhra Pradesh has a triangulation of possibilities. HRIDAY and PRASAD schemes are coupled with the announcement by the Chief Minister Chandrababu Naidu to name the new capital of the state as Amaravati as

하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마치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것과 같고 계획된 수도가 된다는 것은 고대도시로 주말방문객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나 지나친 오락성 스펙트럼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삐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형과 무형유산의 복합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지역 정부 메커니즘은 지역 사회의 문화 리더십을 확보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아마라바티에는 종종 낱자, 왕의 이름, 왕조의 유물을 중심으로 미니멀하게 축소되는 역사의 층이 있다. 약 2100년 전의 거석시대로부터 오늘날에 걸친 방대한 역사적 층을 드러내고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인을 위해 현대적 이해를 창조해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체험관광의 홍보가 필요하다

well. It is about 15 kilometres from the Amaravati Ancient Town. Juxtaposition of the old and new could salvage the neglected heritage town from oblivion. But this is a double-edged sword. Th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will be a breath of fresh air and the planned capital city offers prospects of better access and increased weekend visitation to the Ancient Town. But real estate speculation and enhanced recreational spectrum need to be harnessed to minimise negative impacts. At stake is the complexity of heritag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could help to minimise the negative impacts. A local governance mechanism could ensure community cultural leadership and deliver benefits to the primary stakeholders. There are layers of history in



인도 체나이 박물관의 아마라바티 마하 석탑유물 Amaravati Maha Stupa relief in the Chennai Museum, India © Soham Banerjee 2013.

다. 코말라파티 스리다르 입법의회는 이 고대도시를 모든 지역의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관광산업으로서의 기회 또한 매우 유망하다.

모든 관광사업은 문화이다. 심지어 자연조차도 문화적으로 인식된다.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은 식민지시대의 유산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토착지식체계는 자연과 문화가 서로 섞여 비이중성을 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문화유산관광은 자연과 문화 모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책임 있는 관광개발이 필요하고 단순한 현장방문을 넘어서 체험이 가능한 방문이어야 한다. 진부한 관광이 더 이상 초점이 될 수 없으며 방문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마라바티는 이러한 새로운 개발 접근방법을 약속하고 있다.

Amaravati often reduced to minimalist dates, kings, dynasties with a focus on only in-situ heritage 'relics'. In short the layers of significances from the so-called Megalithic times of some 2600 years ago until now need to be unravelled, creating a contemporary understanding among both locals and outsiders,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ming and promoting experiential tourism. Local member of the state Legislative Assembly Komalapati Sridhar is keen to promote the Ancient Town as part of the educational programming in all the district schools. New opportunities for tourism are promising.

All tourism is cultural. Even that which is natural is culturally perceived. The dichotomy of natural and cultural is a colonial legacy.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in Asia and Africa



아마레스와라(시바)와 그의 부인 차문데스와리에게 바쳐진 중세 사원의 갈리 고푸라 The Gali Gupuram of the medieval temple dedicated to Lord Amareswara (Siva) and his consort Chamudeswari. © A.Galla 2007.

방문객은 학습을 원하는 이웃이나 오지주민, 학교 어린이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등 모두가 그 대상일 수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방문객들도 아마라바티에서의 경험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인구통계 및 대상자 그룹의 심리파악은 아마라바티와 관련된 경험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유산자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학자의 견해 그리고 모든 형태의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며, 열린 사고와 방문객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시도는 아마라바티의 활성화에 있어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부터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는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모델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베트남 중심부의 호이안 고대도시를 예로 들자면, 이 도시는 18~19세기에 그곳에 주택을 건설했

have an embedded non-duality of natural and cultural. In this context, heritage tourism is different as it uses non-renewable resources, both cultural and natural. Therefore, it requires responsible tourism development and must go beyond simplistic site visits to enabling experiential visitation. The focus is no longer on the stereotypical tourist. It is on visitors. Amaravati is promising for developing new approaches.

Visitors could be residents in the neighbourhood or the hinterland, school children and higher education students seeking a learning outcome, or domestic or international visitors paying for an Amaravati experience. An understanding of the demographics and psychographics of such target groups will assist the development of relevant



수확과 번영을 기리는 농촌의 무형문화유산. 하리다스가 박악기와 캐스터네츠로 비슈누신을 찬양하고 치장한 황소는 시바의 마차를 의미한다.
Rural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centring on harvesting and prosperity. Haridas singing in praise of Lord Vishnu (Hari) with one stringed gourd musical instrument and castanets. Gangireddu or decorated bulls are considered as Nandi, vehicle of Lord Shiva, dance to the music from the Shannai and drums. © A.Galla 2016.



바티프롤루의 면 직조과정. 크리슈나강 하류의 아마라바티지역은 로마제국, 후에는 네덜란드 무역상인들 사이에 최고의 면직물로 유명했다.
Process of brushing cotton fibres in Bhattiprolu. The region of Amaravati in the Lower River Krishna Valley was once famous for the finest cottons attracting trade with the Roman Empire and later on with the Dutch merchants. The region known as Maisolia in the Greco-Roman texts remains in the etymology of the finest of cotton textiles known as muslin and the town Masulipatnam. © A.Galla 2016.



아마라바티 지역문화유산사회는 아마라바티 고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고 있다.
Amaravati Heritage Society provides community leadership to advocate responsi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maravati Ancient Town. © Shaik Srinivasa Rao 2015.

experiences. Historical contextualisation of the heritage resources informed by professionalism and rigorous scholarship, openness to multiple interpretations of all forms of heritage and facilitating a plurality of visitor understandings are essential for creating meaningful experiences in the revitalisation of Amaravati.

There are lessons to be learnt from other Asian countries that have provided demonstrated models for safeguarding their diverse heritage against the backdrop of rapid economic growth. Hoi An Ancient Town in Central Vietnam, for example, is protected by the very people whose ancestors built the houses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district of Hoi An, the ancient Faifo, was also known as Amaravati between the 7th and 12th Centuries during the years of the Champa Civilisation. It i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as an 'outstanding

던 사람들의 후손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호이안의 고대 파이포 지역은 참파문명이 발전한 7~12세기의 아마라바티로 알려져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문화의 융합이 뛰어난 소재로 표현된 국제무역항구’이며 또한 ‘전통적인 아시아의 무역항’이 매우 잘 보존된 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호이안의 주택소유자협회는 책임감이라고 연관성 있는 인프라개발을 보장한다. 활발한 청소년단체는 문화유산가치의 세대 간 전승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과 기업 활동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여성과 어린이의 빈곤 퇴치를 보장한다. 호이안의 사례연구는 문화, 건강 그리고 전통적 유산이 삶의 모든 부분에 반영된 가치를 하나로 모으는 웰빙에 대한 좋은 예시이다. 웰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 특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마라바티가 고향이고 호이안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모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접근 방식에서 내가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에 기반을 둔 아마라바티 고대도시의 지역적 발전을 옹호한다. 고대도시와 주변의 이해관계자 공동체 마을 사이의 유기역사적 연계관계는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는 유형 및 무형 유산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원 투자는 기념물과 문화유산건축물의 보존을 지원하고 유산에 민감한 도시 인프라개발을 촉진하는 데 이루어져야 한다. 옛 기닝공장 푸자리 거리의 역사적인 사원건물, 자민 다르 지역의 라자의 집과 기타 건축물들은 지난 200년의 아마라바티 고대도시유산 중에서도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살아있고 다이내믹한 자원인 무형유산 요소에 대한 이해와 보존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적극적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과 주변지역 마을 젊은 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자료와 유산을 경험하는 데 전문적이고 품질을 보장하는 개발이 관광사업의 성장에 고

material manifestation of the fusion of cultures over time in an international commercial port’ and as ‘an exceptionally well-preserved example of a traditional Asian trading port’. The Homeowners Association in Hoi An ensures responsible and relevant infrastructure development. Active youth groups enabl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eritage values. Participation of women at all levels of decision making and in entrepreneurial activities ensures women’s and children’s poverty alleviation. The Hoi An case study is exemplary for bringing together culture, health and wellbeing where valuing heritage informs all walks of life. Wellbeing is understood in a holistic context with evidence-based benefits to all stakeholders, especially the local population.

Coming from Amaravati and having worked in Hoi An Ancient Town, I advocate for grounded and locally developed pathways for the Amaravati Ancient Town informed by new approaches on all fronts with a Sustainable Developmental Action Plan. The organic historical linkages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Ancient Town and the surrounding stakeholder communities and villages needs to be addressed as a priority. It will require quality research on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Investment of resources must assist conservation of monuments and heritage houses and promote heritage-sensitive urb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old ginning mill, historic houses in the Temple’s Pujari Street, Zamindar/local Raja’s House and other buildings from the past 200 years in Amaravati Ancient Town are in need of urgent protection. Understanding and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as living and dynamic resources need to be prioritised. Affirmative action programmes must ensure the participation of disadvantaged women and young people from the town and surrounding villages. Professional and quality assured development of interpretive materials and heritage experiences need to be integral to responsible tourism growth. New attractions need to be developed



무굴루 포틸루 혹은 랑가발리는 수확 끝에 번영과 행복을 기리는 예술로 지역의 스리라마크리슈나 힌두 고등학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세대간 전승에 중점을 두고 권장되고 있다. Muggulu Potilu or Rangawali, ground art celebrating prosperity and happiness at the end of the harvest, is encouraged in the local Sri Rama Krishna Hindu High School with a focus 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 A.Galla 2016.

려되어야 한다. 문화유산 경험을 다양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주변지역에 분산시켜 소득재분배를 보장하려면 배후지역에 새로운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방문객수의 성장과 거주자 및 비즈니스 활동의 증가가 환경에 미칠 영향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크리슈나 강변 시스템의 급격한 저하는 상업폐기물, 마을과 도시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처리, 폭풍침수 피해 해결을 위한 인프라 시설의 개선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통합계획, 지역의 단기 및 장기계획은 개발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 기반 시설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in the hinterland to diversify heritage experiences for dispersing potential growth in visitation and ensuring income redistribution to surrounding communities.

Environmental impacts need to be monitored with the future growth of visitation and increased resident and business activities. The rapid degradation of the Krishna riverine system needs to be addressed through improving infrastructure to deal with commercial waste, sewage from the town and villages and storm water run-off. Integrated local area planning, both short term and long term, by the



대승불교의 아버지, 나가르주나(용수)의 금 도금상, 아마라바티
Gilded statue memorialising Acharya Nagarjuna in his birthplace, Amaravati. Courtesy Vavilala Subba Rao © A.Galla 2009.

local government has to be promoted to continue to enhance the urban infrastructure to cope with development pressures. Amaravati, the ancient Dhanyakataka, once the flourishing capital centre in the formation of Andhradesa and its 75 million Telugu speaking people, birthplace of the Madhyamika philosophy the basis for Mahayana Buddhism, may yet again become the heartthrob of the lower River Krishna Valley. Well known Chinese Buddhist pilgrims came to Amaravati to collect sacred texts in the first Millennium. Now increasing numbers of Korean, Japanese and Tibetan visitors are coming.

A local Amaravati Heritage Society is ensuring civil society engagement and benefit sharing. Amaravati as an Ecomuseum, open air spatial approach to all forms of heritage, including the Ancient Town and its hinterland will ensure sustainable growth. Relevant capacity building and appropriate planning will remain the biggest challenges. An understanding of the past through critical scholarship, professional engagement and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through the carrier and transmitter communities will enable a comprehensive appreciation of the present and hence experiential visitation.

아마라바티 고대 다냐카타카는 안드라데사 형성 과정에서 텔루구어를 말하는 7500만 인구의 번창한 수도였다. 마드야미카 철학과 대승불교의 발상지인 아마라바티는 다시 강하류 크리슈나 벨리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잘 알려진 중국의 불교순례자는 첫 밀레니엄의 신성한 글들을 수집하기 위해 아마라바티에 왔었다고 한다. 이제는 한국, 일본, 티벳에서 오는 관광객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마라바티의 지역문화유산 사회는 시민의 참여와 이익공유를 보장한다. 야외 공간과 경관을 이용한 에코뮤지엄으로서의 아마라바티는 고대도시와 배후지역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에 접근이 가능하게 함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한다. 관련된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 적절한 계획이 가장 큰 도전으로 남아 있다. 전문가와 지식인의 참여로 과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통해 무형유산의 요소들을 보호한다면 방문객들이 유산을 포괄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불교성지 아마라바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갈라 교수 director@inclusivemuseum.org



아마레스워 갈라 교수·박사 | 인클루시브박물관 국제협회 전무이사, 국제문화유산 고문, 아마라바티(Amaravati) 고대도시 큐레이터
www.inclusivemuseum.org

Professor Dr. Amareswar Galla, Executiv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Inclusive Museum, is the International Heritage Adviser and Curator of Amaravati Ancient Town (www.inclusivemuseum.org)